

# 하도급계약 위반 시 공사 낙찰 어려워진다

##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종합심사낙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문건설업계도 수주량 증가 및 수익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으로 원도급 낙찰률이 오르면 하도급 금액도 동반 상승하는데다 심사항목에 하도급계획이 포함되면서 불공정한 계약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는 투찰가격, 공사 수행능력, 사회

적 책임 등을 포함해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 시행에도 하도급계획이 심사항목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계획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의 60%, 원도급의 82% 이상을 하도급계약해야 한다.

하도급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점을 받아 낙찰이 쉽지 않고 추후 공사 입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도급심사가 입찰단계에서 이뤄지면서 종합건설사가 하도급계약

을 보다 충실하게 이행할 것으로 전문건설업계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낙찰률 상승 및 공사비 현실화로 원도급금액과 함께 하도급금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수익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보다 낙찰률 자체가 높고 입찰과정에서 하도급계획 심사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업계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 건설사 동계오륜 특수 ‘끝물’

### 올림픽 공사 발주 완료 지난해 수주 3년전 수준

강원도내 건설공사 수주 실적이 3년 전으로 되돌아가면서 올림픽 특수가 끝났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강원도와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도내 종합건설업체들은 지난해 2152건, 1조2984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연도별 수주 현황은 2010년 1조5459억원, 2011년 1조1376억원, 2012년 1조2710억원, 2013년 1조4666억원, 2014년 1조4286억원이다.

지난해 건설 공사 수주 실적은 201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계관련 공사 발주가 가장 활발했던 2010년과 비교하면 2475억원이나 줄었다. 이처럼 도내 건설업체들의 수주 실적이 3년 전으로 돌아가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가 끝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조성공사 발주

는 모두 완료됐고 진입도로도 마무리 단계다. 아직 남아있는 발주 물량은 개·폐회식장(940억원)과 방송센터(900억원) 조성 사업 등에 불과하다.

하지만 해당 공사들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전국 입찰로 발주될 것으로 보여 도내 업체가 메인 건설사로 참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는 있지만 1개 공사에 1개 업체만 참여할 것으로 보여 혜택받는 도내 업체 수는 제한적이다.

특히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도급과 하도급은 권고 사항이고, 주소만 강원도로 옮겨놓은 ‘철새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지역 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관련 대형공사 발주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그나마 동계특수를 일부 업체들이 누렸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강원권 중심 교통망 구축 도약의 해”

# 통일·북방시대 대비, 철도·도로 인프라 대폭 확충

강원도가 통일·북방시대를 대비해 철도 및 도로 인프라 확충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현재 확정되거나 건설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은 물론 신규 인프라의 국가계획 반영에도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1일 강원도의 건설교통 분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철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및 올림픽 로드 구축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평화대륙 철도 △전국 반나절 생활권 구축을 위한 고속철도망 등 크게 3가지 범주로 추진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및 올림픽로드 구축의 경우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94.0km·2조2114억원·이하 사업비 추정), 여주~원주 철도(20.0km·5001억원), 원주~강릉 철도(120.7km·3조9110억원), 수색~서원주 고속화(108.4km·1539억원), 동해항 인입 철도(1.3km·262억원) 등 5개 사업이다.

이 중 신규 사업인 서울~속초는 예타 조사 진행 중이며, 여주~원주는 지난해 11월 사업 추진이 확정돼 올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해항 인입 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추진한다. 원주~강릉, 수색~서원주는 2017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평화대륙 철도는 지난해 착공한 경원선 복원 백마고지~군사분계선(11.7km·1508억원)을 비롯해 동해선 삼척~계진(167.4km·5조3568억원), 금강산선 철원~유곡(21.6km·6922억원), 북한철도 개량 라진~감호(792.0km·1조7006억원) 등이다. 삼척~계진, 철원~유곡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나진~감호는 정부와 지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반나절 생활권을 위한 고속철도망은 중앙선 원주~제천(44.1km·1조1892억원), 동해선 포항~삼척(168.3km·3조19억원), 내륙 종단선 원주~철원(122.8km·2조2297억원) 등이다. 이 중 원주~제천, 포항~삼척은 2018년 개통을 목표로 노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주~철원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대륙화 전진기지를 위한 고속도로망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총 8개 사업(395.8km)으로, 이 중 동서 고속도로 동홍천~양양(71.7km·2조4141억원), 동해 고속도로 양양~속초 및 삼척~동해(39.1km·1조2200억원), 제2영동 고속도로(56.9km·1조8028억원), 동계 올림픽 지원 IC 개량(312억원) 등은 2016~2017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신규 사업으로는 평택~삼척(123.2km·4

## 진행사업 차질없이 수행 삼척~제진 등 7개 철도 평택~삼척 등 4개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에 전력

조5214억원), 속초~간성(16.6km·1조146억원), 춘천~철원(63.0km·2조3612억원), 포천~철원(25.3km·7194억원) 등으로,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동북아 올림픽로드를 위한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및 동해선 삼척~제진의 국가계획 반영을 전략 과제로 삼고 정차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가 총선거와 관련해 핵심과제를 정차권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를 ‘강원권 중심 교통망 구축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선점을 언급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건설교통 분야의 총 57개 사업에 4563억원(국비 2067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희훈기자 hoony@

### 철도망 구축 사업 \*는 건설중인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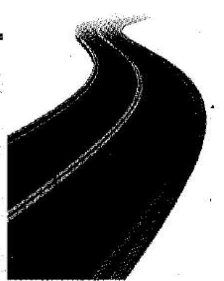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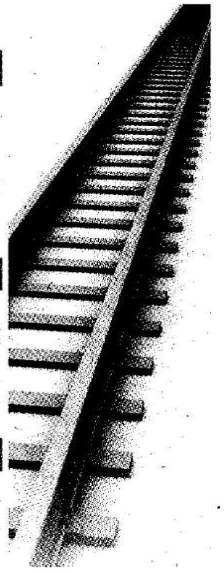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올림픽 로드 구축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2조2114억원
여주~원주 철도	5001억원
원주~강릉 철도*	3조9110억원
수색~서원주 고속화*	1539억원
동해항 인입 철도	262억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 '평화대륙 철도'	
경원선 복원 백마고지~군사분계선*	1508억원
동해선 삼척~제진	5조3568억원
금강산선 철원~유곡	6922억원
북한철도 개량 라진~감호	1조7006억원

전국 반나절 생활권 구축 '고속철도망 사업'	
중앙선 원주~제천*	1조1892억원
동해선 포항~삼척*	3조19억원
내륙 종단선 원주~철원	2조2297억원

### 고속도로망 구축 사업

동서 고속도로 동홍천~양양*	2조4141억원
동해 고속도로 양양~속초 및 삼척~동해*	1조2200억원
제2영동 고속도로*	1조8028억원
동계 올림픽 지원 IC 개량*	312억원
평택~삼척	4조5214억원
속초~간성	1조146억원
춘천~철원	2조3612억원
포천~철원	7194억원



## 26일 동서고속화철도 2차 점검회의

# 경제성 논란 마무리... 2월중 사업 확정에 총력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2차 점검회의가 다음주 초 개최 예정인 가운데 강원도는 2월 중으로 사업을 확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동서고속화철도 예타조사 2차 점검회의는 오는 26일 열린다. 이는 지난해 9월 23일 1차 점검회의 및 10월 2차례 보충회의 후 3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사업 확정에 중요한 경제성(B/C)이 논의될 것이 확실시된다. 도는 그동안 주요 점검사항이 반

영되면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평성규도 경제부지사는 22일 기획재정부 및 KDI(한국개발연구원)를 방문해 예타 분석 점검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강원도·한국교통연구원(KOTI) 등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2차 회의에서 경제성 논란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으로 예타 통과를 해 사업추진을 확정하는 데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서울~속초 동서고속

화철도는 현 박근혜 대통령과 과거 대동령들의 공약사업이자 30년 이상된 강원도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지금까지 전 시스템을 추가등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 만큼 2월 중으로 사업추진을 반드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총사업비 2조2114억원을 투입해 춘천~속초 간 94.95km를 250km/h의 단선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현재 운행 중인 경춘선(98km)과 연결될 경우 서울에서 속초까지 75분이라는 이동이 가능해진다.

정희훈기자

##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강원 화천군 하남면에 위치한 화천 목재문화체험장이 전국 최초로 사회공헌형 목재문화체험장이 전국 최초로 사회공헌형

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2년 동안 11의 이산화탄소 저장량이 인증됐다. 이는 서울~부산 간 증을 취득했다고 21일 화천군이 밝혔다. 2013년 12월 완공된 화천목재문화체

## 광해관리공단, 울 광해방지사업에 410억 투입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올해 광해방지사업에 410억원을 투입한다. 21일 광해관리공단 강원지사에 따르면 올해 4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를 복원하는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한다. 강원 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공단

전체 광해사업비 800억원의 약 51%이며, 강원지역 내 6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별로는 수질개선사업 159억원, 기발에 따른 환경피해를 복원하는 광해방지사업 118억원, 가평광산의 먼지 날림방지사업 57억원 등이다. 정희훈기자